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현판식

전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면서 분권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가 선행된 분권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동북아경제중심국가와 정부혁신, 노동개혁, 농어촌 대책…….(국정과제)다 외운 겁니까? 옛날에 국민교육헌장을 다 외워서 포상휴가까지 갔다 왔습니다. 각기 팀들은 각기 할 일이 있고,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확실하게 일하면 성공합니다. 꼭 중요한 변화를 일궈갈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기구를 줄여야 하는데, 늘리느냐고 핀잔을 하는데 저도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꼭 할 일이 있어서 만드는 기구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제대로 해 주면, 제 마음에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정부 업무에서 방향제시나 감독업무를 줄이려고 합니다. 부처 업무는 장관이 하고, 정부 업무는 총리가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책임지고 일 하도록 위임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발족한 팀과 앞으로 창설할 T/F를 중심으로 국정의 장기과제의 전망에 집중적인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 외 조정업무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유사한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통합하거나, 역할을 분담시키고, 필요 없는 것은 축소해서 정리해서, 그렇게 국정을 운영할 것입

니다. 새로운 기구가 출범하면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또 기구를 세워서, 추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조직이 출범하는 것입니다. 한참 지나보면 성과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국민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놓지 않고 다 잡아서 지속적으로 서로 노력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국민 합의가 필요했는데 벌써 출발하니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국민 합의를 다 하지 않고 조직부터 출범하느냐고 하는데, 일단 기구를 만들어서 안을, 기획단이 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단 위로 국민여론을 모으는 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전에 총리가 지적했듯이, 전 국민적인 여론을 모으는, 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국민 지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수도권 집중 대책은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시 바빠 대책을 세워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는 균형발전 도모하겠지만, 제대로 정리해서 제시해 나가면, 국민들이 지지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성공해야 합니다. 전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면서 분권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